

2026년 6월 14일
성령강림넷째주일
“잘못된 만남”

인도: 김성희



카라바지오, 마태를 부르심 The Calling of Saint Matthew, 322×340cm, 1600, San Luigi dei Francesi, Rome

내가 보곤 합니다, 주님의 하늘과 주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달과 별들도, 주님이 마련해 두신 것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며,
인간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시8:3~4)

(‘예수 우리 왕이여’, 1회 노래합니다.)

찬양
P. Kyle, 1991

예수 우리 왕이여

Lord, Jesus we an throne You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계 17:14)

38
IRREG.
P. Kyle, 1991

보통으로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에 오셔 서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 에 오셔 서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 리 는 영광을 받아주소 서
우리가 주께 드 리 는 찬양을 받아주소 서

우리는 주 님 의 백 성 주님은 우 리 왕 이 라
우리는 주 님 의 종 들 주님은 우 리 주 시 라

왕이신 예 수님 오 셔 서 좌정 하사 다 스리 소서
주되신 예 수님 오 셔 서 이 찬 양을 받아주소서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G Fm→Em E^b7→D7 Cm→Bm D^bM7→CM7

○ 여는 기도 _ 함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느님,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소서
 하느님께서서 빛을 창조하시며
 시작한 첫 날을 우리도 살게 하소서

빛이 들지 않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동굴에 갇힌 듯

자신을 자신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자신을 감추며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땅 속 깊이 자신을 감추며 사람들에게
 햇빛이 닿게 하소서
 하느님께서서 모든 사람을 향해 비추는 빛이
 모든 사람에게 닿게 하소서

사람은 모두,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짓습니다
 욕심과 이기를 벗지 못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품게 하소서

오늘도 부끄러운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흠 많은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1회 노래합니다)

주께 가오니

Geoff Bullock

Transcribed by UNIVERSE

G D/F# Em7 Bm7 Em7 D

주께가 오니 - 날 새롭게 하 시고 - 주의 은혜
나의 눈 열어 - 주를 보게 하 시고 - 주의 사랑

5 C D Em7 D D/F# G D/F#

를 부어 주 - 소 서 내 안에 발 견 한
을 알게 하 - 소 서 매일 나의 삶에

10 Em7 Bm7 Em7 D

- 나의 연약 함 모두 - 벗 어 지 리
- 주 뜻 이 휘 지 도 록 - 새 롭 게 하 소

13 C D C/G G D/F# Em7 D

라 - 주의 사랑 으로 - - -
서 - 주의 사랑 으로 - - -

17 C Em7 D C/G G D/F# Em7 D

주 사랑 - 나를 불 드 시 - - 고

21 C Em7 D G Am7 G/B Am7 G

주 결 에 - 날 이 끄 소 - 서 -

25 C Em7 D C/G G D/F#

독 수 리 - 날 개 처 올 라 가 - - - 듯 나 주 님 과 함

29 Em7 D C D C/G G

께 일 어 나 걸 으 리 주의 사랑 안에 - - -

○ 우리의 기도 _ 심미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예수의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 예수의 기도 _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느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빛 진 사람을) 용서(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빛)를 용서(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느님의 것입니다. 아멘.]

(후주)

○ 성경 마태복음9:9~13 읽기1 _ 심미나

9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다가 보시니, 어떤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나섰다. 10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기대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한자리에 있었다. 11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 선생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12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13가서 배우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니까요.”

○ 성경 마태복음9:14~17 읽기2 _ 김인하

14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5**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혼 잔치의 손님들이 슬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에 금식할 것입니다. **16**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곱지는 않아요. 덧댄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니까요. **17**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 성경 마태복음9:18~26 읽기3 _ 김성희

18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높은 관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아이 위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19**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같이 갔다. **20**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 술을 건드렸다**. **21**그는 ‘저분의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말해 왔던 것이다. **22**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23**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셨다. **24**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러가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25**무리를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 **26**이 소문이 그 온 땅으로 퍼져 나갔다.

○ 침묵

피아노 반주도 쉬겠습니다.

차량 지나가는 소리, 생활 하수 내려가는 소리, 아이들 말소리, 음식 냄새 배경으로, 다시 성서를 천천히 읽습니다. 성서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기도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해도 됩니다.

딴 생각도 나겠지만, 그 또한 기도의 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올리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종이 올린 후, '이곳에 생명샘', 1회 노래합니다)

6 G C D Em C D7 G C D
이 곳에 생 명 샘 솟 아 나 눈물 골 짝 지나 갈 때 에
그 날 에 하 늘 이 열 리고 모든 이 가 보 게 되 리 라

10 G C D Em C D 1. C2 G
머 잤 아 열 매 맺 히고 웃 음 소 리 넘 쳐 나 리 라
마 침 내 꽃 들 이 피 고 영 광 의 주 가 오 시 리 라

15 2. Gsus4 G C D G D/F# Em
꽃 들 도 구 름 도 바 람 도 넓 은 바 다 도 찬 양 하

19 C C/D G G/B C D
라 찬 양 하 라 예 수 를 하 늘 을 울 리 며 노 래

22 G D/F# Em C C/D G
해 나의 영 혼 아 은 혜 의 주 은 혜 의 주 은 혜 의 주

○ 이야기 - 【 잘못된 만남 】 - 김영준

2천 년 전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했을 때, 세금업자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세금업자에게 급여를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주지 않고, 걷어야 할 세금만 할당했다고 합니다. 로마 당국이 받을 세수는 정해져 있었지만 세금업자에겐 따로 정해진 급여가 없어, 세금업자는 되도록 많은 세금을 걷어 할당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자기 수익 삼았습니다. 급여가 정해졌다고 해도 정해진 것보다 더 걷는 업자들이 많았겠습니다. 세금업자는 로마 제국의 재원을 마련하는 말단 관리이고, 일하는 사람의 몸에 빨판을 박아 피를 빠는 거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와 이런 세금업자가 만나는 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구약성경 시대에 출혈병 앓는 사람은 마을(진영) 밖에 격리되었습니다.(민 5:2~3)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보건상 이유였는지,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였는지,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출혈병 앓는 사람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예수께서 12년 동안 출혈병 앓는 사람과 우연히 만납니다. 예수 입장에선 우연이지만, 12년 동안 출혈병 앓던 사람이 의도한 만남이었습니다. 마을 밖에 머물지 않고, 마을 속으로 일부러 들어갔으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와 출혈병 앓는 여자가 만나는 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하느님께선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출25:22)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느님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하느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여겼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는 자리엔 성전이 없습니다. 00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0090년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으니까요. 마태복음은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예언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호6:6)

하느님은 호세아를 통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십니다. 성전에 우뚝 서 있던 때에 하셨을 말씀인데,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제사보다 사랑’이라는 말씀이 새삼 새롭게 들렸겠습니다.

지중해 세계 전체가 로마 제국이던 시절, 그나마 성전이 있어 민족종교로 정체성을 지키다가, 성전마저 파괴되어 마음 속에 소박한 깃발마저 사라져버린 때에, 마태복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전엔 절대 만나지 않았을 사람을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뵈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선포합니다.

어제 6월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스에서 부모들과 당사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도 계셨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영준 목사는 축제를 스케치하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유력 교단 총회들이 성소수자 옹호를 불법이라 규정하기도 합니다. 퀴어성서주석이라는 책을 이단으로 판정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교권주의자들이 볼 때, 교회가 목사가 성소수자들을 만나는 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학생 시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 결성을 반대하는 대자보와 칼럼을 쓰기도 했었구요. 신학의 도움을 받아 성서를 다시 읽으며, 사람들에게 대해 이해하게 되고, 당사자를 만나 대화하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들과 성소수자 당사자를 통해 ‘잘못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저는 성소수자들의 일상과 모임과 운동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소수자도 차별 당하지 않아야,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마저 하느님께서 살리신 것을 확신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께서 펼치신 사랑의 자장 속에 있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성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사

람을 차별치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지오가 세금업자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를 그렸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부르실 때, 누가 마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을 부르는지 묻는 듯한 대머리 남자 같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카드놀이에 빠져있는 청년 같기도 합니다. 카라바지오 그림 속 마태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으나, 예수께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만나는 술집에 큰 창문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벽입니다. 열리지 않는 창문입니다. 어디에선가 열리지 않는 창문을 비추는 빛이 들어옵니다. 성소수자를 향해 창문을 열지 않는 교권주의자들에게도 하느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마저, 하느님의 빛 속에 있습니다.

(설교 기도 끝나면 전주 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과 2절 부릅니다)

(통일 405)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

은혜와 사랑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8.6.8.6.

J. Newton, 1779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엡 2:5)

Traditional American Melody

보통으로

Arr. by E. O. Excell, 1900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높고마워
 3. 이 제삿내 가산도 주 은혜 고은혜라
 4. 어긋서 내 영원히 주 은혜 높고마워

잃었 던 생명 찾 았 고 광 명 을 얻 었 네
 나 처 처 음 믿 은 그 시 간 귀 하 다
 또 나 를 장 차 본 향 에 인 도 해 주 시 리
 해 처 럼 밝 계 살 면 서 주 찬 양 하 리 라 아 멘

○ 침묵과 성찬

(종이 울리면 피아노 반주 따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가 멈추면, 다시 종이 울립니다. 반주자가 먼저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인도자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한 후, 앞으로 나와 성찬을 먹습니다, 성찬을 마치면 ‘나같은 죄인 살리신’ 3절과 4절 노래합니다)

○ 서로축복

인도자: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함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인도자: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함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인도자: 하느님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눈에 있습니다.

함께: 하느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후주)

○ 소식

- 운영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은미A(예배), 김성희(교육), 이진우(행정), 김상래(연대).
- 6월18일(목) 18시30분, 복음과상황세미나실에서, 민들레마포교회 모입니다.
- 6월19일(금) 19시30분, (김근주) ‘레위기’ 읽습니다.
- 6월 22일~27일, 영준 목사는 조중접경지대(단둥~용정)에 다녀오겠습니다.

○ 예배담당

	인도	기도	성서읽기	반주
6월 14일	김성희	심미나	김인하	임수진
6월 21일	김신희	김성희	김하열	이은주
6월 28일	박은미A	이승재	이아린	임수진
7월 5일	박은미B	박은미A	이학영	이은주

○ 성서읽기 - “아침에 하루 한 장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주옥로

일자	15일(월)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20일(토)
성서 본문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7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4장